

연구원 소식

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한국고전문학연구원 회원 대상으로 동아리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2022년 회원 동아리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2. 7월 ~ 12월
3. 사업예산 : 1개 동아리 당 50~100만원 차등지원
※ 사업계획, 동아리 결성 및 활동기간, 활동내역에 따라 차등지급
4. 신청자격 : 한국고전문학연구원 회원이 주체가 되어 5인 이상 참여하는 동아리 사업
5. 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월) ~ 3월 25일(금)
6.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에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연구원 사무국에 전자우편(hangoyeon@hanmail.net)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7. 지원내용 및 항목
 - 지원내용 :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보조
 - 동아리 활동내용은 영화관람 등 문화활동, 답사를 비롯한 체험활동 등 자유롭게 조직하시면 됩니다.
 - 지원항목 : 강사비, 답사비, 교재비, 재료비, 인쇄비 등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필요 경비 지원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2022년 동아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예시)

신청사업명	낮은 산을 찾아 떠나는 발걸음																
사업 목적	- 전북지역에 위치한 낮은 높이의 산을 답사하며 문화와 역사를 학습한다.																
사업내용	추진기간: 2022. 5 ~ 2022. 11 추진지역: 전라북도 일원 운영계획 - 매 일정 회원 및 시민 8인 내외 - 매월 1회 500미터 이하 산 답사 신청액 - 600,000원																
사업세부일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일정</th> <th style="width: 50%;">답사지</th> </tr> </thead> <tbody> <tr> <td>5월</td> <td>김제 구성산</td> </tr> <tr> <td>7월</td> <td>고창 경수산</td> </tr> <tr> <td>9월</td> <td>부안 위도 망월봉</td> </tr> <tr> <td>10월</td> <td>정읍 두승산</td> </tr> <tr> <td>11월</td> <td>완주 봉실산</td> </tr> </tbody> </table>			일정	답사지	5월	김제 구성산	7월	고창 경수산	9월	부안 위도 망월봉	10월	정읍 두승산	11월	완주 봉실산		
일정	답사지																
5월	김제 구성산																
7월	고창 경수산																
9월	부안 위도 망월봉																
10월	정읍 두승산																
11월	완주 봉실산																
기대효과	- 일반 시민도 함께 참여하여 회원 배가 운동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기여																
예산 집행계획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20%;">지출항목</th> <th style="width: 20%;">지원금</th> <th style="width: 20%;">자부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집행 계획</td> <td>교통비</td> <td>250,000</td> <td>200,000</td> </tr> <tr> <td>식대</td> <td>350,000</td> <td>200,000</td> </tr> <tr> <td>합계</td> <td>600,000</td> <td>400,000</td> </tr> </tbody> </table>				지출항목	지원금	자부담	집행 계획	교통비	250,000	200,000	식대	350,000	200,000	합계	600,000	400,000
	지출항목	지원금	자부담														
집행 계획	교통비	250,000	200,000														
	식대	350,000	200,000														
	합계	600,000	400,000														

- ※ 예시본을 참고해 희망하시는 동아리 활동 사업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 공모된 사업계획은 이사회 승인 후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암태도의 송곳, 서태석 - 1924년 3월 27일

목포에서 서쪽으로 2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섬 암태. 한때 섬에 사는 사람이 일만을 넘었으나 지금은 채 2,000명도 안 되는 주민이 살고 있다.

99년 전 섬 전체를 휘감고 종래에 조선 팔도를 흔들었던 암태도 소작쟁의를 통해 “사람다운 사람은 다 암태에 산다.”는 말이 있을 만큼 사람들의 ‘사람됨’을 인정받았던 섬이기도 하다. 1920년대 당시 암태도에는 문재철이라는 유력자가 있었다. 그는 염전업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선상무역으로 부를 쌓았고 1897년 목포 개항과 함께 목포의 대자본가로 성장했다. 그는 약 140 정보의 농지를 소유한 대지주로 많은 농민들이 그 소작을 부치며 살아가고 있었다. 전라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저 멀리 강원도 철원과 충청도 당진에도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그는 무려 7~8할의 소작료를 징수했고 이 터무니가 없는 착취에 맞서 송곳처럼 솟아난 이가 서태석이었다. 그는 20대의 이른 나이에 1912년부터 1919년까지 암태면장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일제 부역자가 아니었다. 그는 1920년에 3·1만세운동 1주년 행사를 준비하다가 감옥에 다녀올 만큼 불령선인에 가까운 인사였다.

1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그의 머리는 더욱 불온(?)해졌다. 민족의식에다가 사회주의 사상의 세례까지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고향 암태는 지주와 마름의 횡포 하에 온 섬이 신음하고 있었다. 그는 자작농 집안이었지만 기꺼이 소작농들의 지도자가 된다. 키가 크고 얼굴이 길쭉하여 외모부터 범상한 사람이 아니었다. “섬이나 지리산 피아골 같은 데는 더러 영똥하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장골들의 후예(민중봉기의 주모자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암태도 소작쟁의 주모자 서태석도 그런 사람의 후손이다.”

(송기숙 산문집, 마을 그 아름다운 공화국 중)

소작인들은 소작료를 4할로 내릴 것과 1리 이상의 소작료 운반 비용은 지주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암태도 소작회원들은 1924년 3월 27일 암태면 동와촌리에서 지주 규탄면민대회를 열고 한물결로 일어섰고 그 중심에 서태석이 있었다.

동학군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선대의 한을 품고 암태로 들어왔고 형제들이 한 섬에 모여 살지도 못하고 각각 다른 섬에 거주했던 남모를 사연을 지닌 서태석은 소작인의 단결을 목청껏 외치며 지주들의 횡포와 수탈을 고발했다. 대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소작민들과 문재철측 인사들이 충돌하자 일제 관헌이 개입한다. 소작인 50여명이 체포됐고 그 가운데 13명이 목표로 끌려가 투옥된다.

이에 전 섬이 들고 일어났다. 청년회고 부인회고 할 것 없이 천 명이 넘는 섬 사람들이 섬을 떠나 물으로 나와 '아사동맹'(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때 불렀다는 소작인의 노래. "뭉치어라 작인들아 뭉치어라 우리의 부르짖음 하늘이 안다..... 뼈빠지게 일하여도 살수가 없거든 놀고먹는 지주들은 누구의 덕인가."

섬사람들은 여행자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그대로 법정 안에서 또는 법원 앞마당에서 굶어 죽자는 결의였다. 남녀노소가 정말로 밥 한 술 넘기지 않고 "대지를 요로 삼고 창공을 이불 삼아" 버텼다.

해방 후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를 위시한 당시 시국 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다투어 변호를 자청했고 조선팔도와 해외에서 성금이 답지했다. 급기야 일본 경찰이 부랴부랴 중재에 나서 문재철과 소작회는 다음과 같은 합의에 서명하게 된다.

"소작료는 4할로 인하하고, 구속자는 쌍방이 고소를 취하하며, 비석은 소작회 부담으로 복구한다." 소작인들의 승리였다.

서태석은 소작쟁의 배후조종자로 검거되어 보안법 위반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이후 1927년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서기로 선출된 후 같은 해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조선 농민총동맹 중앙집행위원이 되었다. 그 와중에 일제에 의한 검거와 고문, 투옥의 반복으로 말년에 정신분열증세에 시달렸다.

그는 암태도의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기 싫다며 누이가 살던 압해도로 거처를 옮겼다. 1943년 광복을 두 해 앞둔 어느 날, 그는 논두렁에서 시체로 발견된다. 이때 그의 나이 환갑을 한 해 앞둔 신아홉이었다.